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소로운 욕심

기숙사에 살 때 내 방에서 내려다보이는 풀밭으로 토끼들이 자주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이 없어서 '저녁밥은 못 하고 당근 오이나 잘라서 먹자'
하고 당근 껍질을 벗기다가 녀석들을 보았다.

나는 당근을 던져주었다. 오물오물 단방에 먹어치웠다.
그후로 자주 나타나서 내가 당근을 던져주면 오물오물 먹었다.
이제는 당근이 집에 없는 날에도 나타나서는 내 방 앞 잔디밭을 어슬렁거렸다.
따로 당근을 사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기숙사로.
버록 당근 때문이지만 찾아오는 녀석들이 참 예뻐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말았으니.....

녀석들 중 두 마리의 목에다 리본을 달아준 거다.
한 녀석에게는 푸른색을, 한 녀석에게는 붉은색을.
여름 내내 우리는 참 친해졌다.
용하게도 녀석들은 언제나 리본을 달고 나에게로 왔다.
경충거리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나보다.
어느 날 나는 기숙사 주차장에서 차에 치인 토끼를 보았다.
그리고 푸른 리본도 보았다. 나는 또 욕심을 내다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다.
내 것이라고 표시하기. 얼마나 가소로운 욕심이었는가.

- 허수경 산문집 '길모퉁이의 중국식당' 중에서... -



◀그뻘 그랬지▶ “포니”
“♪꿈을 꿔어요 포니 포니, 갖고 싶어요 포니포니
아름다운 포니 포니, 나의 사랑 포니 포니
현대 포~니 포니!!”
우리나라 고유 모델차로는 최초였던 “포니”.
처음 볼 때는 얼마나 예쁜던지 지나가는 뒤통수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젠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덮혀 처음 ‘포니’의 모습도 초라한 모델로 남아있지만 처음 보았던 그때의 신선함만은 잊지 않고 싶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3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8월22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본 글은 약 120년전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선교사의 고백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 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사상)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4 (시 8)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27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3:24-30, 36-43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 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천국은?(2)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는 곳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30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윤형권 집사 가곡)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8월의 예배위원◆

◆8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1	이재영	장유진	11구역
8	장현중	정성호	1구역
15	정덕수	정이지	청년부
22	정희자	조미애	2구역
29	최재학	추미선	3구역

1	구역예배(6) 3.4선교회 운동
8	믿음의어머니기도회(10)
15	은 십자가성가대(4여) 학생부 Sports day(15)
22	연합부흥집회(24-25)
29	이삭줍기주일 수요수도원(1)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 <모친방문(미국)> 지찬영 권사. 자식들에게 몸도 정신도 다 내주시고 마르고 빈 몸이 되신 병석의 노모님이 딸을 알아보시도록 기도드립니다.
 - <이사> 김삼영 집사 ☎449-2594 ☐ 53 Bond Cre. Forrest Hill
 - <조금 먼 곳으로 이사-미국> 윤형권, 신영화 집사. 세미. 다미.
*다시한번 도전하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풍성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출국: 신영화 집사. 세미. 다미(28일) 9월 3일: 윤형권 집사)
- "장로회신학대학동문교회 연합신앙부흥회"
(갈보리, 로드니, 섬김의교회, 샘이깊은, 영락, 은누리, 은혜와진리, 임마누엘, 정원, 주님의교회 주안장로) <일시> 24일(화)-25일(수) 저녁7:30 <강사>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장소> 뉴질랜드 은누리교회
- 금주 수요일예배는.....연합부흥회로 '뉴질랜드 은누리교회'에서 갖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예배를(9월1일) "수요수도원"으로 갖습니다
- 정기당회 <일시> 24일(화) 저녁7시. 교회
- 다음주일은 "이삭줍기주일" (예고)
*이번 8월동안 모아두었던 Silver Coin에 다음달 한달이 풍성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사랑의 실천이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드린 Coin은 필리핀, 태국 각 1명, 한국 2명의 어린이들에게 보내집니다

◀착한 시인들▶ 우리가 가진 것 없으므로
김종원

.....

우리들 가진 것 없음으로,
그리하여
욕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슴을 맞닿고 서 있는 지금
서로의 심장이 쿵쿵 뛰는
섬없는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진 것 없으므로
우리 아주 작은 마음까지도
달을 수 있지 않은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사랑을 속삭일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진 것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핏덩이로
왔을때 나는 먹여주는대로 입혀
주는대로 살았습니다. 점점 커가
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이 뛰
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
든 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라
고 여겼습니다.
그렇수록 마음은 더 차가워져
가는데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거
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나 되야 가슴뛰는 마음으
로 세상을 대하게 될런지요. 쥐
었던 것을 놓아야 만나게 될 그
마음. 마지막 순간이나 되야 정
녕 올 시간인지요?